

미워도 다시 한번?... 증권사 추천 40%가 '왕서방 펀드'

최근 수익률 상위 1~4위 '中펀드' 中 자금 유동성 공급 확대 기대 미·중 통상마찰 완화도 긍정적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추천 펀드에 중국주식펀드를 다수 넣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간 통상 마찰도 완화되고 있어서다.

8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연 초 이후 증권사가 담은 새로운 추천펀드 10개 중 4개가 중국주식 펀드로 집계됐다. 정보기술(IT) 섹터를 중심으로한 글로벌 펀드 강세 속 중국 펀드의 약진이 눈에 띈다.

◆ '중국 펀드'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올해 추천펀드에 중국 펀드를 새로 담았다. 중국 시장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한 달 수익률은 여타 펀드 수익률을 크게 앞섰다. 신규 추천을 받은 10개 펀드 중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1위~4위 모두 중국 펀드가 차지했다.

특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1월 증권사 신고 추천펀드 수익률〉

펀드명	유형명	운용사명	순자산	1개월	3개월	1년	2년
신한BNP차이나오퍼튜니티[자](H)(주식)(C-A-e)	중국주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9	6.44	15.02	44.3	13.51
KTB중국1등주[자](주식)C-Ae	중국주식	KTB자산운용	343	5.93	10.36	35.86	5.71
미래에셋차이나본토[자]1(H)(주식)C-A	중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43	5.88	7.82	54.33	12.31
한화차이나[자](주식-재간접)C-A-E	중국주식	한화자산운용	2	5.7	11.79	42.92	5.35
한화한국오퍼튜니티[자](주식)C-E	일반주식	한화자산운용	23	5.23	9.27	12.2	-0.54
교보약사로보테크[자]1(H)(주식)A	정보기술섹터	교보약사자산운용	294	4.14	13.02	33.48	7.46
한화글로벌헬스케어[자](주식)C-A	헬스케어섹터	한화자산운용	359	4.06	15.09	10.85	8.94
NH-AmundiAllset글로벌혁신기업[자](UH)(주식)Ce	글로벌주식	NH-아문디자산운용	1	3.84	6.87	41.51	
키움글로벌5G차세대네트워크[자](UH)(주식)A-e	글로벌주식	키움투자자산운용	15	3.61	8.59	45.52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A-E	중소형주식	KB자산운용	34	2.78	5.4	7.08	1.84

'신한BNP차이나오퍼튜니티[자](H)(주식)(C-A-e)'는 최근 한달 6.44%, 3개월 수익률 15.02%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본토[자]1(H)(주식)C-A'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이 54.33%에 달한다.

1년 전만 해도 중국 펀드는 애물단지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우려와 그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중국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이 평균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2년 수익률은 10% 수준이다. 2년 전 중국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는 이제야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있다는 의미다.

◆ 중국 시장 '주목'

하지만 불과 1년 새 중국 펀드가 '환골탈태'했다. 최근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T기업의 활약도 기대되는 모양새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늘상 애물단지 같았던 중국에 희망이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컸던 시장이었는데 1단계 합의 후 상황이 크게 반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되고, 미·중간 통상 마찰이 화해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6일 중국 시중은행들이 기준율을 0.5%포인트를 인하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약 8000억위안(약 135조원)의 자금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12월 선별적 기준율 인하 등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미·중간 통상 마찰도 완화되고 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주요 쟁점이었던 2단계에서는 기술이전, 지적권, 중국제조 2025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4일 중국 은행업보험업 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위)에 따르면 70조위안(약 1경1805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가계 예금을 주식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증시부양책도 펼치고 있어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 IT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향후 미중 분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중국은 디지털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중국 공급업체의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과 데이터, 관련 장비 사용 등이 모두 중국 위주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참가국에 화웨이 등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진출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공유하고, 미국 등은 중국의 제3세계 통신망 장악과 영향력 강화를 경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동... 7단지 안전진단 신청 준비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진단 신청비 모금활동 진행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목동 6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5·9·11·12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납부를 완료했다.

목동7단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7단지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선 2억~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1억6000만 원을 모았다"며 "1월 중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단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으며 12월 재건축 준비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며 재건축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정영우 기자

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총 2550가구로 구성됐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현재 가장 비싼 단지로도 알려졌다. 지난 12월 ▲전용 59㎡ 13억1000만원 ▲66㎡ 15억2000만원 ▲90㎡ 16억5000만원 등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밖에도 목동 6단지는 지난해 7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비용 모금을 마치고 시기를 조율 중이던 목동 12단지는 최근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5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 공고를 냈으며 11단지는 이달 표본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4·7·8·10·14단지도 비용을 모금 중

이며 진단 보류된 13단지도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목동아파트 1~3단지 중 상향 문제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지역은 기존 2층 일반주거지역에서 3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기본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 사업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총 5단계(A-E등급)이며, 이 중 A·B·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정영우 기자 ywj964@

미래에셋대우

다이렉트 신용융자 등 대출 내달까지 年 2.2%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다이렉트 신용융자, 담보, 매도담보대출 연 2.20%' 이벤트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최근 6개월 내 신용융자, 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이용 내역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신청하면 신용융자, 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모두 연 2.2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쿠폰을 제공한다. 혜택기간 종료 후에는 다이렉트 신용공여 기본이자율 연 9%로 적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

현대차증권

최대 8.1% 제공 DLS 1종

현대차증권은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 총 50억원 규모의 스태프다우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DLS 108호'는 서부텍 사스산원유(WTI) 최근월 선물과 브렌트유(Brent) 최근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5년 만기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6개월 단위 스태프다우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85%(12개월) 이상이면 연 5.4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0% 이상이거나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8.10%(연 5.40%)의 수익이 지급된다.

/손범기 기자

교보증권

상반기 공개채용 실시

교보증권은 본사 및 지점 지원 업무직(6급) 신입사원을 총 10명 내외로 공개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전공제한이 없으며 고졸(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실무면접, AI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지원서 접수는 '교보증권 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는 1월 8일부터 19일까지다.

/손범기 기자

금호·두산건설, 은평 '신사1구역' 재건축 경쟁치열

총 공사비, 제 경비 등 승패 작용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을 놓고 두산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쟁이 치열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체가 총 공사비, 제 경비, 순 공사비 등 공사비를 다르게 제시해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건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에 흡수·합병됐다.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 조감도.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후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사1구역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평당 439만

5000원, 금호건설은 449만원을 써 낸 바 있다. 두산건설이 금호건설에 비해 평당 9만5000원가량 낮게 총 공사비를 제안했다.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제 경비를 69만8000원, 순 공사비를 369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금호건설은 제 경비 23만5450원, 순 공사비 425만4550원을 써냈다.

금호건설은 총 공사비 중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경비로, 반면 두산건설은 총 공사비의 15.9%에 달하는 금액을 제 경비로 제시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